

주간 2017. 05. 15. ~ 2017. 05. 21.

전남농업정보

136
VOL

기상전망

농산물 주간 동향 (관측정보)

- 배추 생산, 출하 및 가격전망
- 무 · 양배추 출하 및 가격전망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국산 생과실, 철저한 준비로 수출 길 탄탄!!
- aT, 농식품 수출 확대 위해 수출업체 자금 지원 박차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2017년산 보리 · 밀 종자 친환경 인증 획득
- 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모내기 행사』 실시

정책동향

- 전남도,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에 61억 지원
- 전남도, 봄 가뭄 대비 안정적 물 공급 총력

사업신청 및 홍보

- 유기농 명인에 도전하세요
- 천연 허브 향기에 취해보세요



전남 농업기술원

목차 및 요약

1. 주간 기상전망 5

- ▶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3~17도, 최고기온: 23~27도)보다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1~6mm)보다 적겠음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8

- ▶ 배추 생산, 출하 및 가격전망
- ▶ 무·양배추 출하 및 가격전망

3.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0

- ▶ 국산 생과실, 철저한 준비로 수출 길 탄탄!!
- ▶ aT, 농식품 수출 확대 위해 수출업체 자금 지원 박차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2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14

- ▶ 2017년산 보리·밀 종자 친환경 인증 획득
- ▶ 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모내기 행사』 실시
- ▶ 단감 국내육성 품종 보급 박차

- ▶ 전남쌀산학협력단 쌀 소비확대에 앞장
- ▶ 미생물도 토종시대, 한국형 발효미생물 뜬다
- ▶ 모내기 후 벼 품종 확인하고 제초제 처리 하세요
- ▶ 고온기 시설과채류 차광도포제로 안정생산 가능
- ▶ 사과·단감 과수원 노린재, 적기에 방제하세요
- ▶ 시설재배지 해충 『친환경 방제』로 미리 대응한다
- ▶ 뽕잎 속 『루틴』으로 비만 걱정 뚫
- ▶ 흑염소 위에서 사료첨가제·세제 만드는 효소 발굴

6. 정책 동향 31

- ▶ 전남도,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에 61억 지원
- ▶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본격 채비
- ▶ 전남도, 봄 가뭄 대비 안정적 물 공급 총력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34

- ▶ 여수시,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보험료 최대 92% 지원
- ▶ 광양시, 『광양매화빵』 광주조선대학교 장미축제에 선보여
- ▶ 고흥군, 모내기에 앞서 동계조사료 수확 본격 시동
- ▶ 보성군, GAP 인증 농산물 확대에 나서
- ▶ 화순군, 농촌체험 팜(Farm)리더 28명 배출
- ▶ 장흥군, 블루베리 작목 6차산업 가속화
- ▶ 영광군, 대파 기계화 정식 현장 연사회 개최
- ▶ 장성군, 농업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준공

8. 해외 농업정보 42

▶ 중국, 후난성 차 산업 동향

▶ 사상 첫 해외 원조용 쌀 750톤, 뱃길에 오른다

▶ 해외 곡물시장 동향 '17. 5. 22.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밀 선물 가격은 옥수수·대두의 강세와 남부 평야 및 중서부 지역의 폭우에 대한 우려로 전일대비 2.3% 상승 마감하였음.
달러화 약세 또한 가격 상승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옥수수 : 옥수수 선물 가격은 미국 중서부 지역의 춥고 습한 기후가 지속됨에 따라 전일대비 상승하였음
- 대두 : 대두 선물 가격은 전일의 급락세 이후 다시 반등하며 전일 대비 0.9% 상승 마감하였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日)

9.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6

▶ 유기농 명인에 도전하세요

▶ 농·수산물산업 창업스타를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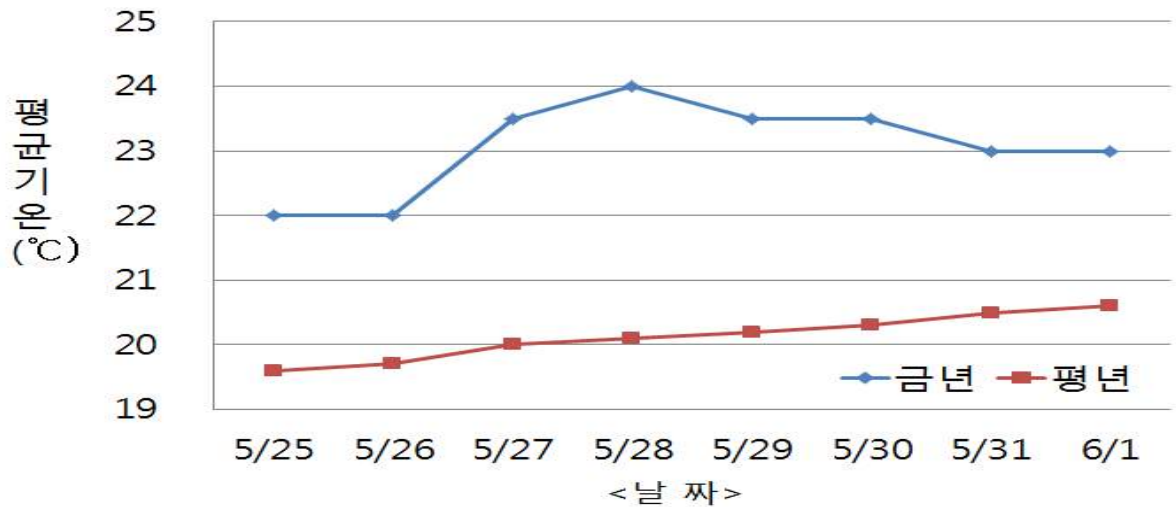
▶ 천연 허브 향기에 취해보세요

▶ 스타팜(Star Farm)으로 농촌체험 떠나요!!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5월 25일 ~ 6월 01일, 광주 기준)

- 평균기온 : 23.1℃ (평년대비 2.9℃ 높음)
- 최고기온 : 30.6℃ (평년대비 4.5℃ 높음)
- 최저기온 : 15.0℃ (평년대비 0.5℃ 높음)
- 강 수 량 : 2.7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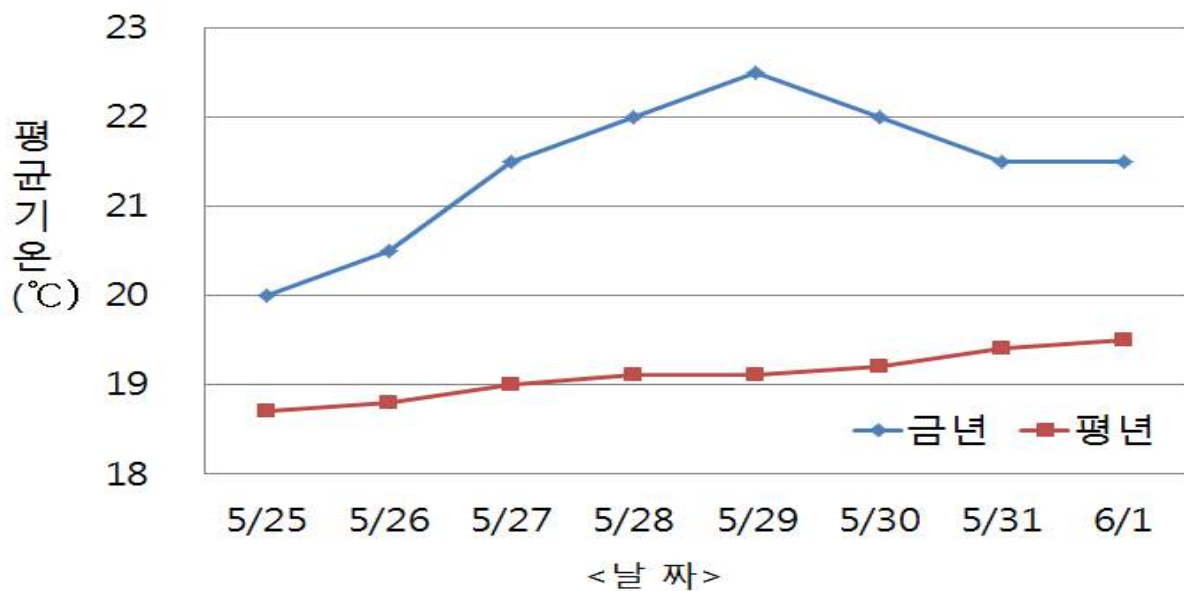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 균	23.1	20.1	2.9	30.6	26.2	4.5	15.5	15.0	0.5	2.7
5. 25.(목)	22.0	19.6	2.4	29.0	25.5	3.5	15.0	14.5	0.5	1.3
5. 26.(금)	22.0	19.7	2.3	30.0	25.6	4.4	14.0	14.6	-0.6	1.9
5. 27.(토)	23.5	20.0	3.5	32.0	26.1	5.9	15.0	14.8	0.2	1.8
5. 28.(일)	24.0	20.1	3.9	32.0	26.0	6.0	16.0	15.0	1.0	2.3
5. 29.(월)	23.5	20.2	3.3	31.0	26.3	4.7	16.0	15.0	1.0	2.4
5. 30.(화)	23.5	20.3	3.2	31.0	26.5	4.5	16.0	15.1	0.9	3.4
5. 31.(수)	23.0	20.5	2.5	30.0	26.6	3.4	16.0	15.3	0.7	4.3
6. 01.(목)	23.0	20.6	2.4	30.0	26.6	3.4	16.0	15.5	0.5	4.4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5월 25일 ~ 6월 01일, 목포 기준)

- 평균기온 : 21.4℃ (평년대비 2.8℃ 높음)
- 최고기온 : 26.5℃ (평년대비 2.4℃ 높음)
- 최저기온 : 16.4℃ (평년대비 1.1℃ 높음)
- 강 수 량 : 2.8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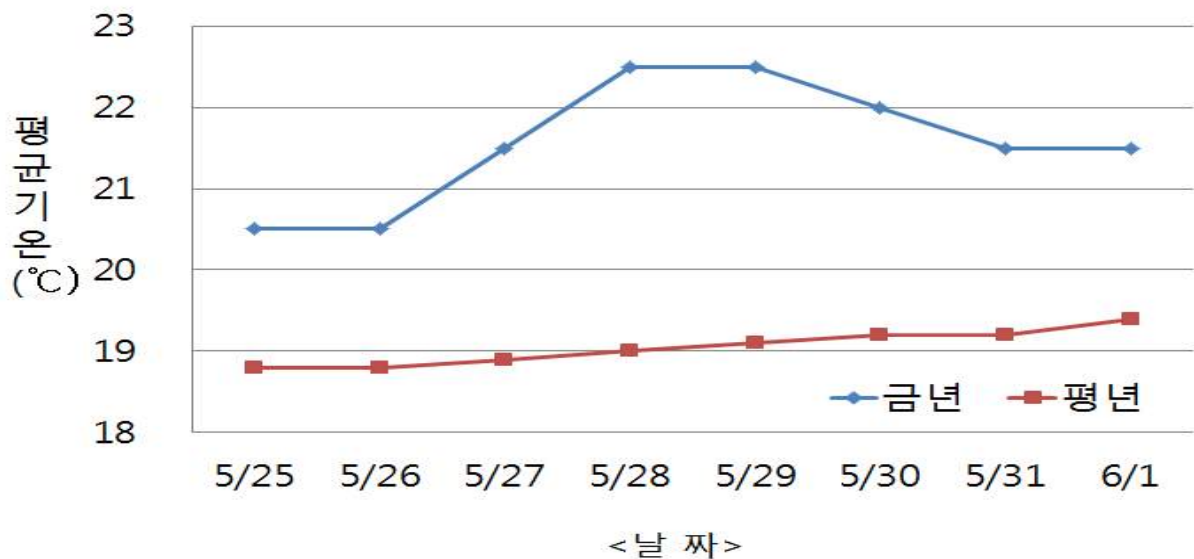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1.4	19.1	2.8	26.5	24.2	2.4	16.4	15.2	1.1	2.8
5. 25.(목)	20.0	18.7	5.0	25.0	23.6	1.4	15.0	14.8	0.2	1.7
5. 26.(금)	20.5	18.8	1.7	26.0	23.8	2.2	15.0	15.0	0.0	2.1
5. 27.(토)	21.5	19.0	2.5	27.0	24.1	2.9	16.0	15.1	0.9	2.1
5. 28.(일)	22.0	19.1	2.9	27.0	24.1	2.9	17.0	15.2	1.8	2.6
5. 29.(월)	22.5	19.1	3.4	28.0	24.2	3.8	17.0	15.3	1.7	2.6
5. 30.(화)	22.0	19.2	2.8	27.0	24.3	2.7	17.0	15.3	1.7	3.4
5. 31.(수)	21.5	19.4	2.1	26.0	24.5	1.5	17.0	15.5	1.5	3.7
6. 01.(목)	21.5	19.5	2.0	26.0	24.6	1.4	17.0	15.7	1.3	3.8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5월 25일~6월 01일, 여수 기준)

- 평균기온 : 21.6℃ (평년대비 2.5℃ 높음)
- 최고기온 : 25.3℃ (평년대비 2.4℃ 높음)
- 최저기온 : 17.9℃ (평년대비 2.0℃ 높음)
- 강 수 량 : 4.4mm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1.6	19.1	2.5	25.3	22.8	2.4	17.9	15.9	2.0	4.4
5. 25.(목)	20.5	18.8	1.7	25.0	22.6	2.4	16.0	15.6	0.4	3.9
5. 26.(금)	20.5	18.8	1.7	26.0	22.6	3.4	15.0	15.7	-0.7	4.3
5. 27.(토)	21.5	18.9	2.6	26.0	22.8	3.2	17.0	15.8	1.2	4.2
5. 28.(일)	22.5	19.0	3.5	26.0	22.8	3.2	19.0	15.9	3.1	3.9
5. 29.(월)	22.5	19.1	3.4	26.0	22.9	3.1	19.0	15.9	3.1	3.6
5. 30.(화)	22.0	19.2	2.8	25.0	22.9	2.1	19.0	16.0	3.0	4.4
5. 31.(수)	21.5	19.2	2.3	24.0	22.9	1.1	19.0	16.2	2.8	5.4
6. 01.(목)	21.5	19.4	2.1	24.0	23.1	0.9	19.0	16.3	2.7	5.4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배추 생산, 출하 및 가격전망

□ 생산전망 : 봄배추 생산량 작년보다 많을 전망

- 2017년 시설봄배추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 증가로 작년과 평년 대비 각각 28, 16%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노지봄배추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로 작년대비 14% 증가, 노지 봄배추 재배면적은 주산지인 문경·의령·아산 등의 면적 증가로 작년대비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하전망 : 5월 상순부터 시설봄배추 본격 출하

- 시설봄배추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증가로 작년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노지봄배추 출하량은 단수는 감소하나, 터널봄배추 재배면적 증가로 작년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가격전망 : 봄배추 본격 출하로 하락세

- 5월 평균 도매가격은 봄배추 출하량 증가와 소비 부진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낮은 10kg당 4,000원 내외로 전망된다.
- 5월 중·하순에는 노지봄배추 출하에 따른 출하량 증가로 상순대비 하락세가 전망된다.
- 6월 가격은 노지봄배추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작년과 5월 대비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무 출하 · 가격전망

□ 출하전망 : 5월 출하량 작년보다 감소, 6월은 증가

- 2017년 시설봄무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로 작년보다 13% 많은 1만 3천톤으로 전망된다.
- 5월 출하량은 시설봄무 출하량이 증가하나, 월동무 저장 출하량이 감소하여 작년보다 23%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가격전망 : 5월 가격 전월대비 상승 전망

- 5월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작년(15,310원)과 전월(13,380원)보다 높은 18kg당 17,000원 내외로 예상된다.
- 5월 순별 가격은 시설봄무 본격 출하로 중·하순이 상순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저장 월동무 품위 및 출하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양배추 출하 · 가격전망

□ 출하전망 : 봄양배추 생산량 작년보다 증가 전망

- 봄양배추 생산량은 작년과 평년대비 각각 19, 21% 증가한 7만 9천톤으로 전망된다.
- 5월 출하량은 봄양배추 출하량이 많아 작년보다 26% 증가할 전망이다.

□ 가격전망 :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을 전망

- 5월 가격은 출하량 증가와 소비 감소로 작년보다 낮은 8kg당 4,000원 내외로 전망된다.
- 6월 가격은 봄양배추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을 전망이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국산 생과실, 철저한 준비로 수출 길 탄탄!!

-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본부장 최영섭)는 국산 생과실의 수출 증대와 재배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수출 상대국 검역요건 교육(Focus-In)을 강화하고, 상대국 우려병해충 예찰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중부지역본부 관할지역의 재배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한 교육은 올해 두 번(1차 품목별 집합교육, 2차 수출단지 개별교육)에 걸쳐 진행되며, 현재까지 화성·천안·안성 등 14개 시군의 신선 과실류 수출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1차 교육(31회 1,737명)을 마쳤다. 선과시 준수사항 등 2차 교육은 8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 1차 교육은 △수출 검역요건 정보, △과수화상병 예방기술, △해외 농산물 수출시장 동향, △농약안전 사용법 등 수요자 중심의 ONE-STOP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 또한, 국산 생과실 수출을 위해 과수화상병의 무발생입증 및 수출 상대국에서 우려하는 병해충에 대한 발생 모니터링 예찰조사를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 예찰조사는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2~4회까지 실시하고, 병해충 예찰을 통해 수출상대국 우려병해충을 조기에 차단하여 검역적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aT, 농식품 수출 확대 위해 수출업체 자금 지원 박차

- 농식품 수출지원 정책자금 650억원 지원 대상 업체 추가 모집 -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여인홍)는 최근 세계경제 침체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 자금 지원대상 업체를 추가로 모집 중이다.
- 지원대상은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농업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일반 업체로,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사업자이다.
- 지원기간은 1년이며, 융자금리는 농업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2.5%, 그 외 사업자는 3%이며, 수출실적 등에 대한 사업평가를 통해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 업체당 지원한도는 200억원 이내로 해당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의무는 대출금액의 50%이상을 수출하는 조건이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되며, 사업지원신청서는 aT 홈페이지(www.at.or.kr) [고객지원 → 자금 지원 → 사업자별 지원안내 → 농식품원료 구매지원자금]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7. 05. 22.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5/22)	1주일전 (05/1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작물	쌀(일반계)	20kg	31,800	31,800	31,800	36,200	41,493	↓ 12.2	↓ 23.4
	콩(백태)	35kg	172,000	172,000	172,000	150,000	162,467	↑ 14.7	↑ 5.9
	고구마(밤)	10kg	26,600	27,400	26,000	31,200	29,760	↓ 14.7	↓ 10.6
	감자(수미)	20kg	53,000	51,000	31,800	41,400	41,107	↑ 28.0	↑ 28.9
채 소 류	배추(봄)	1kg	430	370	-	1,165	747	↓ 63.1	↓ 42.4
	양배추	10kg	4,400	4,500	4,175	12,650	10,177	↓ 65.2	↓ 56.8
	오이(다다기계통)	10kg	12,667	11,333	13,750	10,833	14,467	↑ 16.9	↓ 12.4
	애호박	8kg	12,600	10,800	11,550	11,400	11,563	↑ 10.5	↑ 9.0
	건고추(화건)	60kg	546,000	550,000	560,000	710,000	778,667	↓ 23.1	↓ 29.9
	풋고추	10kg	44,400	49,400	56,350	37,000	42,550	↑ 20.0	↑ 4.3
	마늘(깐마늘)	20kg	135,000	135,400	138,900	175,000	115,920	↓ 22.9	↑ 16.5
	양파	20kg	20,200	22,400	21,150	13,800	14,027	↑ 46.4	↑ 44.0
	당근	20kg	34,000	34,200	44,800	33,000	32,547	↑ 3.0	↑ 4.5
	대파	1kg	1,630	1,660	1,835	2,255	1,827	↓ 27.7	↓ 10.8
	파프리카	5kg	20,800	16,200	19,550	15,200	20,720	↑ 36.8	↑ 0.4
	참외	10kg	44,600	47,600	47,500	30,750	35,947	↑ 45.0	↑ 24.1
	토마토	10kg	23,200	20,400	21,850	16,150	21,360	↑ 43.7	↑ 8.6
	방울토마토	5kg	19,600	19,800	17,900	14,450	16,120	↑ 35.6	↑ 21.6
	수박	1개	17,400	18,200	16,250	15,450	16,563	↑ 12.6	↑ 5.1
과 일 류	사과(후지)	10kg	39,600	38,400	37,900	36,800	49,822	↑ 7.6	↓ 20.5
	배(신고)	15kg	44,200	44,200	41,500	44,400	48,680	↓ 0.5	↓ 9.2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5/22)	1주일전 (05/1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19,000	519,000	519,000	526,000	551,333	↓ 1.3	↓ 5.9
	느타리버섯	2kg	11,600	11,200	12,600	13,600	12,440	↓ 14.7	↓ 6.8
	새송이버섯	2kg	7,600	7,200	7,450	8,000	8,160	↓ 5.0	↓ 6.9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846	7,691	7,899	7,353	6,433	↑ 6.7	↑ 22.0
	돼지고기(삼겹살)	100g	2,228	2,221	2,045	2,024	1,905	↑ 10.1	↑ 17.0
	닭고기	1kg	5,827	5,906	5,527	5,303	5,545	↑ 9.9	↑ 5.1
	계란(특란)	30개	8,040	7,962	7,761	5,327	5,601	↑ 50.9	↑ 43.5
	우유	1리터	2,530	2,530	2,529	2,549	2,479	↓ 0.7	↑ 2.1

※ 가격변동폭이 30% 이내 ↑↓, 31~70% ↑↓, 70% 이상 ↑↓ 으로 표시함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7. 05. 22.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293 천원	5,208 천원	5,915 천원	↑ 1.6	↓ 10.5
	거세	6,477 "	6,586 "	7,186 "	↓ 1.7	↓ 9.9
송아지 (6~7월)	암	3,047 "	2,943 "	3,167 "	↑ 3.5	↓ 3.8
	수	3,754 "	3,713 "	3,866 "	↑ 1.1	↓ 2.9
육우(600Kg)		2,351 "	2,922 "	3,371 "	↓ 19.5	↓ 30.3
젖소수송아지(7일령)		206 "	206 "	335 "	- 0.0	↓ 38.5
돼지(110kg)		439 "	398 "	404 "	↑ 10.3	↑ 8.7
육계(원/kg)		2,536 원	2,457 원	1,257 원	↑ 3.2	↑ 101.8
계란(원/특란10개)		2,119 "	2,117 "	940 "	↑ 0.1	↑ 125.4
오리(원/kg)		2,667 "	2,667 "	1,667 "	- 0.0	↑ 60.0

※ 한우(거세우) : 7,080천원/마리(△603)

· '15년 생산비(5,658)-'15년 송아지 가격(2,332)+현재 수 송아지 가격(3,754)

- 육우 3,798천원, 돼지 297천원, 육계 1,278원/kg, 오리 1,944원/kg, 계란 1,051원/10개, 우유 763원/ℓ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2017년산 보리·밀 종자 친환경 인증

- 흰찰쌀보리 0.7ha, 금강밀 0.58ha 등 총 1.28ha 인증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소장 홍석봉)는 도내 친환경종자 생산·공급 확대를 위해 흰찰쌀보리·금강밀 1.28ha에 대해서 2017년 5월 12일부터 2018년 5월 11일까지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획득 했다고 밝혔다.
- 종자관리소는 친환경 종자 확대 생산을 위해 재배포장을 선정하고 인력제초, 친환경 제재를 활용하여 관리해 왔으며, 도내 친환경 인증기관인 목포대 친환경인증센터로부터 인증을 획득했다.
- 종자관리소는 친환경 종자 보리 1.6톤, 밀 1.6톤을 생산하여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청 받아 보급종 가격의 80% 가격으로 도내 우수 친환경농업단지에 우선 분양할 계획이다.
- 종자관리소 관계자는 “우리 도 역점시책인 친환경농업을 뒷받침 하기 위해 어렵지만 종자관리소에서 친환경종자 생산·공급하여 친환경 실천에 일조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말했다.
- 한편,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에서는 종자갱신을 증대와 식량자급을 확대를 위해 벼·보리·콩 등 27품종 81ha에서 395톤의 고품질 우량종자를 생산하여 국립종자원, 시군, 농협 등에 유·무상으로 공급해 오고 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모내기 행사』 실시

- 영호진미·해품·호평 등 10품종 156톤 우량종자 생산·공급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2017년산 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모내기 행사』를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장 등 관계자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5월 18일 종자관리소 광주 동곡포장에서 실시했다.
- 종자관리소는 2017년산 벼 10품종 32ha에서 156톤의 우량종자를 생산하여 원종 및 보급종 78톤은 국립종자원에 공급하고, 증식종 78톤은 도내 농가에게 공급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금년도 벼 우량종자 생산용 첫 모내기는 5월 18일 일미벼를 시작으로 5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우렁이 농법을 통해 잡초제거 등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순도 높은 고품질 품종을 생산해 종자용으로 공급하게 된다.
- 그동안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에서는 우리지역 RPC 및 쌀 브랜드 경영체가 선호하고 있는 전국 12대 브랜드와 전남 10대 브랜드 품종인 일미벼와 호평벼에 대한 보급종과 증식종 종자를 생산하여 질 좋은 고품질 쌀을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왔다.
- 종자관리소 홍석봉 소장은 벼 종자 이외에도 콩·팥·녹두 등 두류와 맥류·잡곡 등 연간 300여톤의 우량종자를 생산·공급하여 전남 농산물 품질향상은 물론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단감 국내육성 품종 보급 박차

- 조완·로망 등 5개 신품종 16ha 조성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단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에서 육성한 고품질 신품종을 16ha 조성한다고 밝혔다.
- 순천과 장성지역에 조성될 단감 신품종은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조완·원미·원추·로망·감풍 등 5품종이며, 관·배수 시설 등 고품질 단감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상품화 및 마케팅 사업이 추진된다.
- 전남농업기술원은 지역 특성에 맞는 단감 신품종을 보급하기 위해 2017~2018년 동안 2년에 걸쳐 국비 8억원을 확보했다. 국내 육성품종 보급을 통해 소비자 인식제고와 품종 편중현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 전남지역 단감 재배면적은 2,542ha로 전국의 26%차지하나, 10월 하순~11월 상·중순에 수확하는 만생종인 부유와 차랑은 89%를 차지하며, 일본에서 육성한 품종이다. 이 때문에 소비시기와 상품의 다양성이 제한적이며 일시에 홍수 출하되어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 전남농업기술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석 시즌에 생산될 수 있고 품질 품종과 국내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출에 유리한 품종을 중점 보급할 계획이다.
- 추석에 생산될 수 있는 단감인 조완은 9월 하순에 수확하며 당도는 16.4°Brix이다. 수출용 단감 로망은 10월 중순에 수확이 가능하고 당도는 18°Brix로 매우 높다. 특히 부유(220g) 대체 품종인 감풍은 420g으로 대과종이며 부유보다 1주일 먼저 수확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남쌀산학협력단 쌀 소비확대에 앞장

- 전라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5월 19일 지속적인 쌀 소비감소와 재고량 증가에 따른 해결책으로, 쌀산학협력사업으로 개발 중인 『쌀머핀·쌀쿠키 시제품 관능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관능평가회는 (주)구례삼촌에서 개발 중인 산수유·쭉부쟁이 등을 첨가한 쌀머핀·쌀쿠키 등 12종에 대해 7점 척도법을 적용해서 가공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 평가회에 참석한 (주)구례삼촌 이명엽 대표는 『기존에 개발 특허 출원 된 우리밀 머핀으로 젊은층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면, 우리 쌀을 이용한 산수유·쭉부쟁이 등 건강기능성분이 많이 함유된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재료를 첨가한 우리쌀 머핀·쿠키를 개발해서 기성세대까지 소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관능평가결과는 평가요소별로 데이터화해서 개발업체에 제공,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전남쌀산학협력단 차성충 단장은 “쌀 소비확대를 위해 이번 시제품 관능평가회는 물론 쌀빵·케익·스콘 등 현재 개발 중인 가공품 개발을 통해 쌀 소비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전남쌀산학협력단은 쌀 소비확대를 위한 고품질 쌀 생산 및 가공식품 개발을 목표로 1단계 3년차 사업을 수행중이며, 올해는 (주)구례삼촌, 순천대학교가 쌀 가공품 개발업체로 선정되어 쌀 가공품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미생물도 토종시대, 한국형 발효미생물 뜬다

- 기능·관능 뛰어난 토종미생물 자원 73종 확보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우리 술과 장류 종균에서 선발한 토종 발효미생물을 국가 생물자원으로 등록하면서 종균 제조 연구와 산업 현장에 적용해 미생물 종균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은 순창군 장류사업소,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전북 대학교와 함께 장류(된장·청국장 등)와 우리 술(약주·증류주)의 저장유통과 맛을 좌우하는 요소인 국내 토종 발효미생물 가운데 기능성과 관능적 특성이 뛰어나고 안전성이 확인된 균주 73종을 생물자원으로 등록했다.
- 이번에 선발한 73종의 토종미생물은 장류용 종균 43종, 약주용 종균 10종, 증류식 소주 종균 20종이다.
- 장류용 종균(곰팡이, 고초균, 유산균)은 곰팡이가 만드는 독소(아플라톡신)를 생산하지 않는 누룩곰팡이 10종과 효소(전분, 단백질 분해) 활성, 혈전용해와 항비만 등 기능적 특성이 뛰어난 고초균 21종과 유산균 12종을 생물자원으로 확보했다. 또한 현장 실용화할 수 있게 종균 제재화 매뉴얼 개발과 장기보존 기술을 확립했다.
- 특히, 장류용 고초균은 높은 혈전용해효소 생성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점질물(폴리감마글루탐산, PGA) 생성이 중간 또는 강한 균을 보유하고 있어 소비자 기호에 맞춘 점질물이 많거나 적은 장(청국장)을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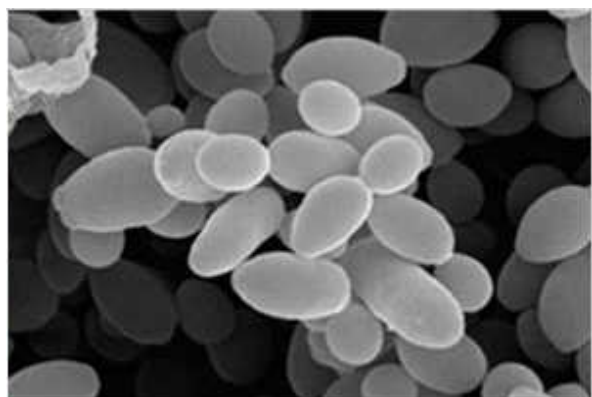


- 약주용 종균(효모)은 저온에서 알코올 발효가 우수하고 향미가 뛰어난 효모 10종을 선발해 효모의 높은 균체수를 5개월 이상 보존할 수 있는 액체종균 제조 기술을 확립했다.
- 증류식 소주 종균(효모, 유산균)은 알코올 생성능이 높은 효모 10종과 향미 생성이 높은 유산균 10종을 선발해, 효모와 유산균을 조합해 진한 향과 깔끔한 맛이 뛰어난 증류주 제조에 성공했다.
- 유해 미생물에 대한 항균활성, 효소활성이 높은 장류용 종균으로 양질의 장(된장·청국장) 생산과 저온 조건에서 발효능력이 우수한 종균(효모) 사용으로 과일향이 풍부한 약주를 만들 수 있다. 발효 종균 중 장류용 2종과 약주용 1종을 특허출원했고 기술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 우리 발효식품은 세계적인 식품으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에 수입되는 미생물 종균은 연간 1억달러이며, 이중 발효 종균은 4,400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번 토종 발효미생물 자원 확보로 발효종균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메주 유래 곰팡이 분리】



【약주용 발효종균의 효소 활성 및 전자현미】

■ 모내기 후 벼 품종 확인하고 제초제 처리 하세요

- 저항성전용 HPPD 저해 제초제 사용 시 약해 주의 당부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벤조비사이클론, 메소트리온, 테퓨릴트리온 함유 제초제를 뿌리기 전에 벼 품종을 확인한 다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HPPD 저해제들인 벤조비사이클론, 메소트리온, 테퓨릴트리온 등 3종은 논에서 발생하는 주요 저항성 잡초인 물달개비와 올챙이고랭이 등을 효율적으로 방제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제초제 성분에 포함되면서 몇몇 벼 품종에서 약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특히, 쌀과자·막걸리 및 쌀국수 가공원료로 쓰이는 새미면·팔방미·다산·남천·안다·아름 벼 등에 약해가 심하게 발생한다. 이는 제품 포장지 또는 작물보호제 지침서에 표시돼 있으나,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농가에서 놓치기 쉽다.
- 학계에는 혼반용이나 떡 가공용으로 쓰이는 향미벼와 한강찰벼에도 약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고, 일반계 품종인 삼백·금영·한들·조아미·산들진미 품종 등에도 약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약해를 입은 벼는 카로티노이드 색소합성이 억제돼 벼 잎이 하얗게 변하고 생육이 저하된다. 심한 경우 회복이 어려우며, 점차 벼 전체가 갈색으로 변하면서 말라 죽게 된다.
- 2017년 4월말 현재 벤조비사이클론, 메소트리온, 테퓨릴트리온 함유 제초제는 각 83종, 15종, 19종이 등록돼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고온기 시설과채류 차광도포제로 안정생산 가능

- 고온 억제 효과 높아 작물 수량 증대... 비용과 제거 노력 절감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에서는 고온기 시설과채류 재배 시 과도한 빛을 차단해 시설내부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차광도포제를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 5월 이후 외부 기온이 서서히 높아지고, 일사량이 많아지면서 시설내부 기온이 40℃ 이상 되는 고온화 현상으로 인해 작물의 생육과 품질, 수량이 떨어진다.
- 시설과채류 재배농가에서는 고온기에 시설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흑색차광막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초기 비용이 많이 들거나 사용 시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다.
- 농촌진흥청 시설원예연구소는 농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한 차광도포제를 이용하면 고온 억제 효과가 높고 작물 수량도 증대된다고 전했다.
- 기존 농가에서 사용하던 흑색차광막은 연동하우스나 유리 온실 밖에 설치할 경우 천창 때문에 설치가 불편하며 하우스 내부에 설치하면 온도하강 효과가 낮아진다.
- 차광도포제는 하우스 외부에 바르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하며 시설내부로 유입되는 빛을 고르게 분포시켜 내부 온도를 3~4℃ 낮춰준다.

- 차광도포제 성분은 석회, 생분해성 전분 등 친환경 조성물로 열선 투과는 억제하고 광합성 유효광의 투과는 높여준다. 도포 후 1개월이 지나면 강우에 의해서 도포제가 조금씩 벗겨져 차광이 필요한 시기 이후에 별도의 제거 작업이 필요하지 않다.
- 차광률은 도포제와 물의 희석비율(도포제:물 희석비율=1:4~10)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 차광도포제는 바람이 불지 않고 맑은 날 뿌려주면 되는데,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력분무기를 이용하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관행(무차광)보다 차광도포제 사용 시 딸기의 당도가 4%, 단단함이 8% 높았고, 수량은 오이 17%, 토마토 21% 늘었다.
- 차광도포제는 1,653㎡(500평) 기준 시 15만원 내외의 구입비가 드는데 기존 흑색차광막 비용보다 48%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산 차광도포제를 이용하면 수입 차광도포제보다도 가격이 30~40% 저렴하면서 별도의 제거 노력이 들지 않는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사과·단감 과수원 노린재, 적기에 방제하세요

- 과원 문제 노린재 예찰·방제 당부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봄철 사과·단감 과수원에 침입해 피해를 주는 노린재 2종의 침입시기를 조사해 방제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방제할 것을 당부했다.
- 사과원, 단감원 과실에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노린재는 썩덩나무 노린재, 갈색날개노린재 등이다.
- 이들 노린재 2종은 농작물의 잔재물, 나뭇가지의 줄기나 뿌리 같은 거칠거칠한 껍질 틈이나 야산의 낙엽층에서 월동한 이듬해 4~5월경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 과원으로 노린재가 유입되면 과실의 피해 부위가 움푹 들어가 불규칙한 표면이 되고 과육이 스펀지처럼 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집합페로몬 트랩을 이용하면 5월부터 11월까지 썩덩나무노린재, 갈색날개노린재의 밀도 변동 파악이 가능하고 방제시기 결정에 도움이 된다.
- 현재 판매되고 있는 노린재류 포획 집합페로몬 트랩을 과수원 바깥쪽 가장자리 주변으로 지상 1.5 높이에 설치하고 4~5주 간격으로 미끼를 교체하며 포획 밀도를 조사하면 된다.
- 트랩은 과수 나무로부터 10~15m 정도로 충분히 떨어지게 설치해야 페로몬 트랩에 유인된 노린재류 성충들로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과실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2016년 전북 김제·장수와 경남 사천에서 노린재류 발생을 조사한 결과 썩덩나무노린재의 경우 5월 하순부터 6월 상순까지 월동한 성충들의 포획 최성기가 있었고, 8월 중순과 10월 상·중순이 신성충의 발생 최성기였다.
- 노린재류는 삼동초·감자·완두·오디·오미자·복분자·녹두·동부·콩·수수·감 등에서도 발생이 많으므로 시기별로 이들 기주식물체에서 노린재류 발생정도를 조사하고 조기에 잡는 것도 중요하다.
- 사과원의 경우 노린재류의 주요 방제시기는 6~9월이며 심식나방류(복숭아순나방, 복숭아심식나방)와 동시에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노린재류에 효과적인 적용약제는 유기인계, 니코티노이드계, 합성피레스로이드 계통의 약제이며, 이들 약제들은 연달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갈색날개노린재 성충】



【갈색날개노린재 약충】

■ 시설재배지 해충 『친환경 방제』 로 미리 대응한다

- 진딧물 · 응애 · 총채벌레 주의... 천적 방사로 예방 당부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5월 들어 밤·낮 기온이 오르면서 참외·수박·고추 등 시설재배 과채류에 해충 피해가 늘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사전 관리를 당부했다.
- 시설과채류 주요 해충은 진딧물, 응애, 총채벌레 등으로 이들은 살충제에 대한 내성이 높아 방제가 어렵다.
- 이들 해충은 세대가 짧아 증식 속도가 빠르고 크기가 작아 발견이 쉽지 않기 때문에 초기 방제에 실패하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준다.
- 특히, 목화진딧물, 온실가루이, 꽃노랑총채벌레 등의 피해가 심한데 주로 새로 난 가지나 잎, 꽃에 많이 발생한다. 피해 증상으로는 시들음, 잎의 황화, 과실 갈반, 기형과 발생 등이며 바이러스 매개로 인한 피해로 이어진다.
- 시설과채류에 발생하는 해충의 친환경 방제를 위해선 천적을 미리 방사하거나 유기농업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시설재배지 내 진딧물은 5월 이후에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난다. 따라서 5월 중순까지 진디벌, 진디혹파리 등의 천적을 방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잎응애는 6월 이후부터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5월까지 칠레이리응애를 방사하면 효과적으로 발생수를 줄일 수 있다.

- 총채벌레는 6~7월에 발생이 심하므로 5월까지 오이이리응애나 총채가시응애를 방사한다. 이미 부분적으로 많이 발생했다면 고삼, 님 등 식물추출물이나 파라핀, 유칼립투스, 계피유 등 식물성 오일을 제품에 표기된 배수에 따라 희석한 후 잎과 줄기에 뿌려준다.
- 7월 이후에는 시설 내 온도가 높아져 대부분의 천적은 활동력이 약해지므로 방제효과가 줄어든다. 따라서 천적을 활용한 예방 차원의 방제는 6월까지 가능하다.
- 이미 부분적으로 해충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엔 신속히 저독성 농약으로 방제한다.
- 진딧물은 피메트로진 수화제, 플로니카미드 입상수화제, 아세타미 프리드수화제 등, 잎응애는 스피로메시펜 액상수화제, 사이에노 피라펜 액상수화제 등, 총채벌레는 크로르헨나피르 액상수화제 등의 성분이 들어간 약제를 뿌리면 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뽕잎 속 『루틴』 으로 비만 걱정 푼다

- 루틴 함량 2~5배 높이는 손쉬운 추출·가공법 개발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비만을 억제하는 뽕잎 속 루틴(rutin) 함량을 높이는 방법과 손쉬운 추출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뽕잎은 『풍을 제거하고 열을 내리며, 눈을 밝게 한다』 고 한의서에 기록돼 있으며, 두통이나 눈이 피로한 사람이 차(茶)로 마시면 좋다.
- 루틴은 가바(γ -aminobutyric acid, GABA)와 더불어 콜레스테롤 저하, 당뇨·고혈압·동맥경화 및 중풍 예방 등 다양한 뽕잎의 효능을 나타내는 기능성분 중의 하나이며, 특히 봄 뽕의 어린잎에 많이 들어 있다.
- 뽕 품종 중 항비만 활성이 높은 『청울뽕』을 선발하는 한편, 루틴 함량을 2~5배 높이는 방법을 개발해 특허출원했다. 또한 가정에서도 뽕잎의 루틴을 섭취할 수 있는 손쉬운 가공법을 개발했다.
- 『부영상·울본·청일뽕·청울뽕』의 어린 뽕잎을 채취해 항비만 활성이 높은 품종을 선발했다. 뽕 품종별 추출물 중 『청울뽕』의 경우 $500\mu\text{g}/\text{ml}$ 농도 처리 시 대조구(뽕잎 추출물 무처리구, 지질 축적률 100% 기준) 대비 42.1%의 지질 축적률을 나타내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가장 높았다.
- 루틴 함량을 높이는 방법은 봄 뽕잎 채취 → 3회 깨끗한 물로 씻은 후 그늘에 펴 널어 물기 완전히 없앴(선풍기 이용) → 열풍 건조(60°C) → 환류 추출(80°C , 열풍 건조 뽕잎 분말 + 구연산 + 주정 또는 물, 25배 첨가) → 여과 → 농축 → 용해 및 저온정지(재결정화) → 원심분리 → 동결건조 → 분말 제조한다.

- 또한, 가정에서 손쉽게 주전자를 이용해 뽕잎의 루틴 추출 시 구연산 0.5%를 첨가하고 35배의 물을 넣어 중불로 추출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밝혔다.
- 일반 가정에서는 주전자에 뽕잎 분말 30g, 구연산 0.5%, 물 1L를 넣고 중불로 가열하다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이는 과정을 3회 반복한다. 전체 물의 양이 30% 정도 될 때까지 중불로 다시 줄인 후 잘 걸러 냉장고에 두고 마시면 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흑염소 위에서 사료첨가제·세제 만드는 효소 발굴

- 기존 효소 분해 능력의 2배... 수입 의존도 높은 국내 시장 겨냥 -

- 효소는 생물이 만드는 단백질로서, 복잡한 화학반응의 속도를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친환경적인 특성 덕분에 기존 화학재료보다 고부가가치 소재로 떠오르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한국재래흑염소의 위(胃)에서 사료첨가제와 세제로 바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분해 능력이 뛰어난 효소 유전자 55개를 발굴하고, 유전공학기법을 활용해 이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국내 산업용 효소시장은 연간 1,000억원 규모(약 7,000톤)이나, 대량생산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95%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 효소 활용제품의 최종가격은 수입 효소 가격에 많은 영향을 받는 데 산업용 효소시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50%)을 차지하는 사료첨가제 생산에 발굴한 효소를 활용한다면 사료비 절감 효과로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천연세제, 프리바이오틱스 등 기능성 식품소재, 2세대 바이오에너지 생산과 같은 다양한 산업분야의 원천소재로도 활용 가능하다.
- 흑염소는 풀을 먹고 되새김질을 하는 가축 가운데 매우 거친 먹이에 적합하도록 진화했다. 덕분에 되새김 위(반추위) 미생물에서 각종 분해효소를 풍부하게 분비한다.

- 연구진은 볏짚 사료만으로 사육한 한국재래흑염소 위에서 반추 위액과 소화물의 미생물 DNA를 채취하고, 다시 이 DNA를 추출해 얻은 유전자 조각을 실험용 대장균에 넣어 유전자은행을 만들었다. 이를 활용하면 흑염소에서 효소를 추가 채취하지 않아도 원하는 효소 유전자를 찾아 낼 수 있다.
- 이 유전자은행에서 발굴한 섬유소분해 효소의 활성을 확인한 결과, 1~50units/mg 정도의 활성을 보였다. 특히, 특정(KG51) 효소의 경우, 널리 쓰이는 트리코더마 레세이(*Trichoderma reesei*) 섬유소분해 효소보다 2배 강한 활성을 나타냈다.
- 연구진은 빠른 산업화를 위해 효소 유전자를 바실러스균에 넣는 과정을 추가했다. 이렇게 하면 세포 안에서 효소를 채취하는 작업 없이 효소가 세포 밖 배양액으로 자연스럽게 추출돼 생산단가를 30% 정도 낮추고, 순도를 높일 수 있다.
- 이번 연구결과는 『흑염소 반추위 미생물 유래 신규 섬유소분해 효소 발굴 및 특성 구명』이란 제목으로 『엽선 미생물학지(*Folia Microbiologica*)』 등 국제학술지 3곳에 실렸다.
- 효소 34종은 특허등록하고, 11건은 미생물 배지와 효소를 만드는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했으며, 연구 과정에서 생산한 대량의 미생물 유전자은행과 관련 정보는 국내 산업체, 연구자들과 공동 활용할 예정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6. 정책 동향

◆ 전남도,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에 61억 지원

- 배·단감 등 고품질 생산, 생산비 절감 등 집중 -

- 전라남도는 과실 수입 개방에 대응하고 과수농가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600여 농가에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 61억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배·단감·사과 등 과수농가에게 고품질 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유해조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 관수관비시설, 농산물 운반기, 방풍망, 방조망, 농업용 난방기 등 18종을 지원한다. 과수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가 실질소득을 증대한다는 방침이다.
- 최향철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 사업이 전남 과수 기반 산업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과수농가가 선호하는 시설·장비를 계속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전남지역 과수 재배면적은 1만 8천 304ha로 전국의 12%를 차지, 경북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다른 도와 달리 매실을 비롯해 배·단감·유자·참다래 등 10여 종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 출처 : 전라남도

◆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본격 채비

- 전남도, 나주시·농협경제지주와 위탁운영협약... 판로확대 기대 -

- 전라남도는 16일 나주시와 농협경제지주(주)(대표이사 김원석)가 호남권 친환경물류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 이날 협약에 따라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는 앞으로 5년간 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한다.
- 전라남도과 나주시는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협력과 물류센터 조기 활성화 지원에 나서고, 농협경제지주는 전남 친환경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도민(나주시민)을 우선 고용하게 된다.
- 그동안 전라남도과 나주시는 2016년 12월 위탁운영주체로 농협경제지주를 선정하고 농협경제지주 실무진과 협약을 위한 세부 논의를 해왔다.
- 3개 기관은 물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지원 협의체를 1월 구성 운영하고 위·수탁 협약기간, 전남지역 학교급식 지원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시군별, 품목별로 친환경물류센터에 출하 가능량과 물류센터에 출하된 친환경농산물의 판매망 구축을 위한 유통업체 방문 등도 추진해 왔다.
- 이번 협약 체결로 농협 하나로마트 뿐만 아니라 전국 친환경 매장에 전남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개척 토대를 마련하고, 효율적 전남형 친환경학교급식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으며, 서울시 공공급식 등 납품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전라남도



◆ 전남도, 봄 가뭄 대비 안정적 물 공급 총력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금년 강수량이 예년보다 매우 적고, 농업용수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영농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경기 남부 및 충남 서부지역 등 가뭄피해 우려지역에 긴급 급수대책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금년 전국 평균 강수량은 155mm로 예년 259mm의 60%에 불과하고, 농업용저수지의 전국 평균저수율은 72%로 예년(81%)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 특히, 모내기 등 본격적인 영농기에 접어들면서 저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저수율이 30% 미만인 곳도 있어 앞으로 강수량이 적을 경우 일부지역에서는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농식품부가 올해 영농기에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을 분석하여 작년 10월부터 경기도·충남도를 비롯한 6개 도 18개 시군에 대해 관정 등 용수원 개발, 간이양수장 설치 및 저수지 물채우기 등 농업용수 확보대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금년 들어 강수량이 매우 적어 경기 남부 및 충남 서부지역에는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된다.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뭄피해가 우려되는 경기도와 충남도에 영농 급수대책비 40억원(국고32억원, 지방비8억원)을 긴급 지원하였으며, 지역상황에 맞게 간이양수장 설치, 용수원개발, 양수장비(양수기, 송수호스) 보급 등을 통해 차질없이 영농급수대책을 추진 하도록 하였다.
- 가뭄 확산 정도에 따라 추가대책비를 지원하는 등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하천수 등 가용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뭄 극복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농업인들도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물꼬 관리 등 농업용수 절약을 위한 노력을 적극 펼쳐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출처 : 전라남도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여수시,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보험료 최대 92% 지원

-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비와 시비를 활용 풍수해보험료를 최대 92%까지 지원한다.
-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를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한다.
- 보험료는 정부지원금이 더해져 저렴한 편이다. 차상위계층에게는 76~92%,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86~92%가 지원되고 일반가입자도 55~92% 지원을 받는다.
- 금액으로 환산하면 일반가입자는 연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200~2300원 수준이다.
- 가입대상은 주택(단독·공동)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로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고, 세입자의 경우도 소유한 동산에 대해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이 1년 소멸성 보험인 점은 유의해야 한다.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이 아니므로 매년 새로 가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 가입을 원하는 시민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 건설방재과 (061-659-4045)로 문의하면 된다.
- 민간보험사인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 출처 : 여수시

■ 광양시, 『광양매화빵』 광주조선대학교 장미축제에 선보여

- 시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조선대학교 장미 축제 특산품판매장에 광양 매화빵 홍보·판촉 행사를 개최했다.
- 『광양 매화빵』은 지역 대표 농·특산물의 브랜드를 홍보하고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 광양 매실을 이용한 관광상품화 사업으로 개발한 빵이다.
- 잘게 썬 상큼한 매실과 매실원액이 첨가된 앙금에 국내산 우리밀 밀가루 반죽이 어우러져 깊고 새콤한 맛을 내 남녀노소 인기가 많다. 특히, 개별포장이 되어 있어 먹기도 편하고, 광양매화꽃이 그려져 있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에게 건강간식 선물로도 안성맞춤이다.
- 『광양매화빵』을 개발한 『빵집이야기(대표 안선희)』에서는 『주식회사 광양매화빵』이라는 농업회사법인을 만들고 식품제조가공업을 시작하며 전국에 판매하고 있다. 입소문을 타고 찾는 소비자가 많아진 『광양 매화빵』은 최근 LF스퀘어 내 로컬푸드 마켓과 우체국 쇼핑 등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 출처 : 광양시



■ 고흥군, 모내기예 앞서 동계조사료 수확 본격 시동

- 양질의 조사료 79,060톤 생산해 축산농가 부담 완화 -

- 고흥군은 모내기 시작에 앞서 겨울철 유희농경지에 파종했던 동계 사료작물을 본격적으로 수확한다고 17일 밝혔다.
- 군에 따르면 조사료 생산을 위해 전체 논 면적 12,962ha 중 67개 경영체가 약 3,953ha에 동계 사료작물인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을 파종했으며, 5월 초 중에 수확을 시작하여 7월까지 생산을 마무리하고, 하계에는 옥수수과 수단그라스 등을 파종해 7월부터 10월 말까지 수확한다.
- 군은 동계 사료작물 재배단지 3,953ha(일반단지2,853ha, 전문단지 1,100ha)를 조성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조사료 79,060톤을 생산하여 사료비 증가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고심하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한층 완화시킬 방침이다.

* 출처 : 고흥군



■ 보성군, GAP 인증 농산물 확대에 나서

- 보성군(군수 이용부)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지역 농산물 생산을 위해 올해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인증 확대에 나섰다.
- 군은 1억원의 사업비로 벌교읍과 조성면 쌀 재배단지 2,086ha를 『주산지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GAP 인증제도 확산을 실시할 방침이다.
- 또한, 10월까지 농가별 GAP 인증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 조사·실천요령, 위해요소 분석·관리요령 안내 및 인증신청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개별적으로 GAP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 및 단체는 인증기관에 의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해당 읍·면에 GAP 인증서, 검사 성적서, 영수증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GAP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군 관계자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농산물에 대한 품질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GAP인증 제도는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해 소비자들의 높아진 안전관리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농업인들도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한편,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 신뢰제고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인증제도이다.

* 출처 : 보성군

■ 화순군, 농촌체험 팜(Farm)리더 28명 배출

-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와 농장주 소득향상 기대 -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5월 11일 이서면과 동면 현지 농장에서 체험실습과 평가를 끝으로 28명의 농촌체험 팜(Farm)리더를 배출했다고 17일 밝혔다.
- 화순군에 따르면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3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농촌체험 팜리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 군은 농촌체험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비롯해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능력과 마케팅 측면에서의 미흡한 부분을 다뤄 농장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농장에 적용할 경우 교육생의 70%가 100~300만원 이상의 향상된 소득을 기대한다고 설문에 답해 앞으로 농촌체험이 농촌의 소득을 향상하는데 새로운 소득 모델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박조훈 농장주는 “무엇보다 강의실에서 개발한 농장별 체험프로그램을 농장에서 실습하고 모니터링과 평가까지 할 수 있어서 앞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촌체험 팜리더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선진지 현지견학, 고객초청 체험 운영 등의 지원을 통해 화순이 농촌체험의 명소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화순군

장흥군, 블루베리 작목 6차산업 가속화

- 장흥군(군수 김성)은 전남농업기술원이 주관하는 전국 제1의 1시군 1특화 작목으로 장흥 블루베리를 선정 육성해 오고 있다.
-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10억원을 투입 블루베리 단지 기반과 6차산업에 집중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블루베리 단지를 조성한다.
- 장흥군은 2013년부터 기후변화에 대비한 미래 대표작목으로 블루베리를 육성해 오면서 지리적으로 해풍을 동반한 따뜻한 기후와 비옥한 토양이 블루베리 생육 환경에 최적합지로 경쟁력 있는 작목으로 평가 받고 있다.
- 장흥군은 그 동안 다년간의 블루베리 작목 생산 노하우로 전국 제일의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1월부터 교육 및 농가 상호간 정보교환 등을 꾸준히 계속해 왔다.
- 또한 보다 현장중심의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고자 5월 상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남해출장소와 재배기술 및 공동연구 등 업무 협약을 하였고, 수확 후 선별과 저장 일관시스템 기술을 적극 보급하여 고품질 과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신기술을 전파하였다.
- 새로운 부가가치 상품을 만들기 위해 생과 위주 판매였던 1차 산업에서 벗어나 회진면 일대에 165m² 규모의 블루베리 가공 시설을 신축하고, 블루베리 즙·식초·청·와인 등 다양한 블루베리 상품을 개발해 6차산업으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 출처 : 장흥군

■ 영광군, 대파 기계화 정식 현장 연사회 개최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5월 16일 백수읍 하사리에서 대파재배 농업인과 관계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연사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영광군의 대파 재배는 340ha를 재배하고 있는 주산지로 사양토 재배를 통한 연백부의 길이가 길어 전국적으로도 품질이 매우 우수한 대파를 생산하고 있다.
- 하지만 지금까지 대파의 정식은 수작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대파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양념채소류의 파종, 정식, 수확 등 일관기계화 체계 구축이 시급하여 금년도 농촌지도시범사업 4개소, 원전사업자 지원사업 10개소 등 대파 정식 기계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 금번 연사회는 국내에서 대파 동력정식기를 보급하는 2개 회사를 초청 제품소개, 작동요령, 정식시연 등을 통해 현장에서 사용하는 공급 회사별 기계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여 농가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
- 관행대로 인력 이식을 하였을 때 10명이 1ha의 면적에 정식 하지만 동력 이식기를 이용할 경우 10시간 기준 0.7ha면적에 정식이 가능하여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 출처 : 영광군



■ 장성군, 농업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준공

-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는 16일 장성군수, 군의원, 농·축협장, 농업 관련 단체와 농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센터 내에 새로 건립된 『농업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준공식을 열고 자축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 『농업유용미생물』은 채소나 과수 같은 농작물의 생육촉진, 광합성 촉진, 병해충 예방, 토양 물리성 개선을 가져오는 다양한 효과가 있으며, 축산분야에서도 악취제거와 가축질병 발생감소, 설사예방, 증체율 향상에 도움을 주는 미생물로 환경에 무해하고 효과가 좋아 농가의 선호도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에 준공된 『미생물배양센터』는 2016년 장성군이 농촌기반 조성 사업비를 확보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농기계창고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것으로, 399m² 규모에 배양실, 실험실, 기계실 등을 갖추고 있다.
- 내부에는 미생물 배양에 필요한 멸균배양기, 살균기 등 10대의 첨단 미생물 배양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5월부터 미생물 배양을 시작해 농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 공급예정인 유용미생물은 유효균, 고초균, 광합성균, 효모, 혼합균 등 총 5종으로 그동안 큰 효능을 봐 온 축산·과수·원예 농가에게 연간 200톤 생산 공급기로 했다.
- 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희망일 7일전까지 미생물 공급신청서를 제출한 후 주 1회 농가당 20리터씩 개별 포장된 미생물을 원하는 날짜에 받아갈 수 있다. * 출처 : 장성군

8. 해외 농업정보

◆ 중국, 후난성 차 산업 동향

- 후난성(湖南省)은 중국의 4대 차 생산 성 중 하나로, 거의 모든 시와 현에서 차를 생산함. 차 재배 면적, 생산량, 총 생산액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임. 찻잎 수확 인건비 상승과 프리미엄 차 판매 증가로 후난성 차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 중임
- 후난성 내 창사(長沙), 이양(益陽), 웨양(岳陽), 상탄(湘潭), 양시저우(湘西州)에서 주로 차를 수출함. 후난성 차 수출액의 90% 이상을 창사시가 차지하며 나머지 4곳의 차 수출량은 비교적 적은 편임
- 주요 수출 차 품목은 녹차이며, 홍차·꽃차·우롱차·보이차가 그 뒤를 이음. 2015년, 후난성 차 수출량은 2만 8,210톤 500kg, 수출액은 1억 8,000만위안이었음. 후난성 차 생산 기업 대부분은 민영기업으로, 2015년 민영기업의 차 수출량은 후난성의 차 총 수출량의 93.2%를 차지함
- 후난성 차 산업은 후난성 농업 부문 가운데 주요 산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후난성 정부는 2013년 이후, 차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으며, 그 결과 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 2017년 3월, 후난성차산업협회는 상차(湘茶, 후난 차) 산업 규모 1,000억위안 달성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 밝힘. 추진 계획으로는 대량 차 생산지역 확대 및 우수한 차 유통범위 확대 등이 있음

- 이에 따라 후난성 정부는 품질 및 생산요소 효율성 향상의 일환으로 차 생산 업체들의 우수한 차 재배지 건설, 생태 유기농 차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음
- 2017년 1분기 매년 개최하는 전문 전시회 이외에 후난성 각지에서 차 산업 관련 행사가 총 13건 개최됐음. 2016년 선정한 후난성 10대 차를 홍보하고 더 많은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음
- 후난성 대표 차인 헤이차(黑茶, 흑차)는 지역에 따라 주로 후난 헤이차, 윈난 헤이차(푸얼차)등 총 7종류로 나뉨. 후난 헤이차는 후난성 안화현(安化縣)에서 최초로 생산됐으며, 안화현은 5년 연속 중국의 주요 차 생산 현 4위 안에 들고 있음. 또한 안화현의 헤이차는 2010 상하이 EXPO 당시 후난관의 주요 전시상품 중 하나였음
- 중국 내수시장에는 이미 다양하고 우수한 차잎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많아 우리나라 차잎이 경쟁력을 갖기 어려움. 이에 대추차·유자차 등 중국의 전통적인 차와 차별성이 있는 액상차로 후난성 차 시장을 공략한다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고려됨
- 또한, 중국은 자국산 농식품에 대한 불신 및 식품안전문제, 소득 증가로 인한 구매력 상승으로 외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웰빙 트렌드 확산으로 우리나라 차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웰빙·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최근 커피 대신 차를 찾는 사람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국내 차 시장은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사상 첫 해외 원조용 쌀 750톤, 뱃길에 오른다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한·중·일 및 아세안의 역내 쌀 비축 기구인 애프터(APTERR)를 통해 사상 처음으로 우리 쌀 750톤이 해외 원조용으로 지원됨에 따라, 5월 19일(금) 전남에 위치한 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선적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지원되는 쌀은 캄보디아 250톤, 미얀마 500톤 등 총 750톤이며, 5월 18~20일 광양항을 출항하여 5월 말~6월 중순 캄보디아 시아누크빌(Sihanoukville) 항구 및 미얀마 양곤(Yangon) 항구에 도착, 애프터 사무국을 통해 인도될 예정이다.
- 금번 기념식에는 쌀 농업인을 대표하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및 대한곡물협회 등 주요 관련단체 대표, 정인화 국회의원, 전라남도지사(권한대행), 원조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관기관 기관장 등이 참석하여 우리 쌀의 최초 해외 원조 행사를 기념하였다.
- 한편, 금번에 원조되는 쌀은 캄보디아·미얀마 등 수원국 현지에서 1년간 보관될 예정이며, 보관기간 중 비상 상황 발생 시 재해구호 용이나 빈곤퇴치용으로 캄보디아 및 미얀마 국민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 농식품부는 향후 '17/'18년 애프터 무상원조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인 식량원조협약(FAC) 가입을 완료하는 대로 '18년부터 식량원조협약에 따른 대규모 쌀 현물원조(연간 460억원 규모)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7. 5. 22.(시카고 선물거래소)

□ 남부 평야 및 중서부 지역의 폭우에 대한 우려로 밀 선물 가격 상승

○ 밀 선물시장 상황(▲2.3%)

- 밀 선물 가격은 옥수수·대두의 강세와 남부 평야 및 중서부 지역의 폭우에 대한 우려로 전일대비 2.3% 상승 마감하였음. 달러화 약세 또한 가격 상승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1.7%)

- 옥수수 선물 가격은 미국 중서부 지역의 춥고 습한 기후가 지속됨에 따라 전일대비 상승하였음. 달러화 약세 또한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대두 선물시장 상황(▲0.9%)

- 대두 선물 가격은 전일의 급락세 이후 다시 반등하며 전일대비 0.9% 상승 마감하였음. 브라질 대두 파종 지역에 향후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파종 지연 및 단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가격 상승을 지지하였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유기농 명인에 도전하세요

- 전남도, 채소·과수 등 6개 분야 6월 19일까지 시군서 접수 -
- 전라남도는 현장의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저비용 유기농 선도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있는 농업인을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6월 19일까지 시군을 통해 대상자 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 유기농 명인 지정을 신청하려면 5년 이상 유기농법을 실천하면서 유기농자재 직접 개발 등 자신만의 독창적 농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저비용 유기농 축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 신청자에 대해서는 서면, 현장, 심의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서면평가는 유기농업 경력, 개발 농자재, 기술보급 상황 등 신청서의 근거서류에 의해 진행된다.
- 현장평가는 1차 평가표에 근거한 제출 서류 사실 여부와 유기농업 가치관, 보유기술의 독창성, 자재활용 가능성, 경영비 절감 효과, 기술 보급 기여도 등에 대해 유기농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1차·2차 평가 등을 통해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기농 명인으로 결정, 지정서를 발급한다.
-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되면 명인의 농장 앞에 안내표지판을 제작해 설치해 주고 유기농 명인교육과정 전문강사로 활동토록 하며, 명인이 생산하는 농식품의 포장용기 등의 표면에 도지사가 정하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 출처 : 전라남도

◆ 농·수산물식품산업 창업스타를 찾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농·수산물 식품 분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해 5월 22일(월) 접수를 시작으로 『2017 농·수산물식품 창업 콘테스트』(이하 콘테스트)를 본격 개최한다고 밝혔다.
- 대회 진행방식은 지역예선을 통해 45개팀을 선발하여 전국 본선을 실시하고, 상위 10개 팀이 최종결선 무대에 진출하는 서바이벌 형식으로 진행된다.
- 콘테스트 전 과정은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9~11월 경 공중파 채널을 통해 방영(총 6회)될 예정이다.
- 최종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억원이 수여되는 등 총 1억 7천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며, 결선 진출팀에게는 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 자금과 현장 창업보육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펀딩을 연계하는 등 후속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 참가자격은 창업한 지 5년 이내(2012. 1. 1. 이후)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이며, 농·수산업 및 식품업, ICT 관련 첨단기술, 푸드테크, 농·수산물 활용 바이오분야, 농·수산자재 등 농·수산물식품분야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결합시킨 아이템이라면 무엇이든지 응모가 가능하다.
- 신청기간은 5월 22일(월)부터 6월 29일(목)까지이며, 공식 홈페이지(www.a-creative.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2017 농·수산물식품 창업 콘테스트』 공식 홈페이지(www.a-creativ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천연 허브 향기에 취해보세요

- 농업박물관, 27일 라벤더 활용한 『허브 공예품 만들기』 체험행사 -

- 전라남도농업박물관(관장 김우성)이 라벤더를 활용한 『허브 공예품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농업박물관 판매동 일원에서 개최한다.
- 『허브 공예품 만들기』 체험을 바라는 도민은 박물관 누리집(<http://www.jam.go.kr>)이나, (사)문화사업진흥회(010-9631-4196)에 신청하면 된다.
- 이번 체험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라벤더는 농업박물관이 2016년부터 농업테마공원에 조성한 향기(허브) 식물원에서 생산된 것이다.
- 향 주머니 만들기 5천원, 천연 샴푸 만들기 1만원, 애착인형 만들기 1만원, 낮잠 베게 만들기 2만원 등 다양한 공예품 만들기 프로그램을 유료로 진행한다.
- 6월이면 지난해부터 조성한 농업테마공원 내 향기(허브) 식물원에서 1만 그루가 넘는 라벤더의 자줏빛 꽃 향기를 즐길 수 있다. 농업박물관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 개방하고 있다.

* 출처 : 전라남도



◆ 스타팜(Star Farm)으로 농촌체험 떠나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친환경, GAP, 전통식품 등 국가인증 농식품의 가치와 품질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 대표농장 『스타팜(Star Farm)』에 소비자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현장체험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스타팜(Star-Farm)이란 친환경, GAP, 전통식품 등 농식품 국가인증제에 참여한 농가 중 안전한 농식품 생산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농장으로서 농관원은 전국 470개소를 스타팜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스타팜 현장체험 행사』는 총 145회 5,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소비자 참여 확대를 위해 농관원과 민간여행사가 역할을 분담하고, 현장체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된다.
- 농관원에서는 자체 선발 기준에 따라 전국 2,500여명의 스타팜 체험 참가자를 모집하여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민간여행사(2개소)에서는 스타팜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통해 약 2,800여명의 소비자에 대한 스타팜 현장체험을 지원하게 된다.
- 스타팜 현장체험은 친환경·GAP·지리적표시 농산물 생산·수확, 유기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제조 등 국가인증 농식품의 생산·제조 체험과 GAP시설에서 농산물의 위생적인 처리과정 등을 견학하고 지역 문화탐방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 스타팜 체험행사 일정 및 참여 방법 등 세부사항은 스타팜 홈페이지(<http://starfarm.farm2table.kr>)와 스타팜 연계 여행상품 운영 여행사(여행스케치 www.toursketch.co.kr / 로망스투어 www.romancetour.co.kr)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전남농업정보

136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58213
Tel. 061-330-2593 Fax. 061-335-4199